

## 그리스도인의 삼중적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이에 따른 기독교 윤리적 실천방안

김 석 호\*

### 논문초록

본 논문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삼중적 관계성을 고찰하여 이에 따른 윤리적 실천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인 인간의 죄악성과 연약성을 인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영위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연합의 관계(Communion Relationship), 부자관계(Father-Son Relationship), 주종관계(Master-Servant Relationship)를 이루고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호의존적 관계(Interdependent Relationship), 동역자적 관계(Co-worker Relationship), 도덕적 관계(Moral Relationship)를 형성하고 있고, 자연과의 관계로는 동료관계(Companionship), 청지기관계(Stewardship), 그리고 친족관계(Kinship)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삼중관계적 특징들을 신학적으로 살펴본 뒤에 이에 따른 윤리적 실천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예배'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죽고 남을 살리는 '희생과 봉사'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피조물과 함께 공존하는 '살림'의 관계로 구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윤리, 삼중적 관계, 연합의 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 상호의존관계, 동역자관계, 도덕관계, 동료관계, 청지기관계, 친족관계, 예배, 희생, 봉사, 살림

---

\* 대신대 실천신학 교수

2012년 5월 3일 접수, 6월 7일 최종수정, 6월 14일 게재확정

## I. 들어가는 말

기독교는 교회의 중요한 네 가지 속성을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로 고백하면서 381년 제정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이래로부터 인정해 왔다(서철원, 2003: 377). 그 중에 거룩성은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정체성으로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 1:16)’의 성경의 말씀에 따라 지켜왔다. 이 거룩성은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되는 성경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는 사회에서는 높은 윤리적 가치로 인식하였다. 모든 사회의 가치가 성경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교회가 윤리적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닐지라도 기독교에서 높은 윤리적 삶의 실천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기독교에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된 성경은 신자들에게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살전 5:22). 그러나 현실은 전혀 딴판인 듯 하다. 교회의 거룩성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교회와 목회자, 신자들의 윤리실종이 각 중 매스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어떻게 기독교의 윤리적인 실천이 회복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윤리적 실천을 이루게 하는 교회의 거룩성,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삼중적관계성을 통하여 윤리적 실천의 대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 1. 그리스도인 삶의 실존적인 요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을 자신의 노력이나 실존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신자의 제일의 목적으로 여긴다(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드러낸 자신의 지고지순의 형상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치의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최고 최대로 드러내고 동시에 모든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이는 이런 관계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는 우리 인간의 현 실존적인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형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먼저 인간의 현 실존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성경의 이해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크게 두가지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타락과 죄악성, 둘째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제한성과 한계성 즉 인간의 연약성을 말한다. 인간의 실존적인 본질의 이 두가지 특징을 바로 이해하여야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삶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있다.

### (1) 인간의 타락과 죄악성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존재한다.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등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성악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큼 아름답고 온전하였다. 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가깝게 만들어져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만물보다는 우월하게 창조된 인간은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이로 인해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고, 관계론적으로 에덴동산에서 영위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다른 자연만물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인간은 의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상실되었고,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가 파괴된 타락의 길을 가게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여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오직 죄악된 길로 갈 수 밖에 없고 그 결과로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다 한가지로 죄에 치우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만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이 땅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내주하사 인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하

나님의 의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칭의로 인해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본성이 다시 변화되었다거나 인격이나 성품 등 자질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성경은 우리의 자질이 변화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우리의 영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살아있는 영(생명)이 되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이 재림 시 부활체로 거듭날 때까지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날마다 영의 소욕으로 살면서 육의 소욕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과 겉사람을 동시에 가지고 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덧입은 상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롬 8장; 고후 5:4)<sup>1)</sup>.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선과 의는 자신의 변화된 자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법에서 나온다는 것이다(롬 8:1-11) (존 칼빈, 2009: 51-61). 이런 이해 속에서 인간의 자질에 기댄 기독교교육이나 기독교 윤리, 인간의 자질의 변화에 집중하는 제자훈련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해야 하고, 기독교윤리는 우리의 자질에 근거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신뢰적 관계를 이루는데 방향과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인간 심성의 백지설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자질의 변화에 초점을 둔 많은 윤리적 이론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1)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창조 시 인간에게 본성으로 주어진 속성을 뜻한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서의 본성은 타락으로 상실하였지만, 중생을 통한 회복은 자질의 회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인간의 삶 속에서 선과 의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선은 자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은혜로 나온 것임을 의미한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질의 회복을 말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를 말하면서(고후 4:4; 골 1:15), 곧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을 가진(히 10:1) 하늘에 속한(고전 15:49)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형상(롬 8:29; 갈 4:19)을 따라 살라고 권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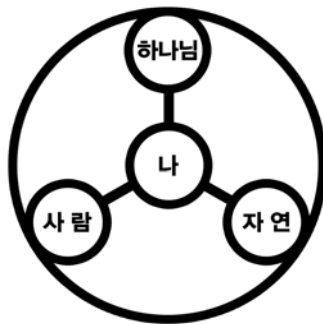
## (2) 인간의 한계성과 제한성

인간의 본질을 영과 육으로 보는 이분설과 영혼육으로 보는 삼분설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양분되어 있다. 여기서 이분설이 맞느냐 삼분설이 맞느냐를 논쟁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창조 시 모든 만물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그 육체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존재론적으로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 육체는 배고프고, 아프고, 병들고 시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육체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 주변의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의존하고 있고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므로 주변의 실존적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무엇을 먹고, 어디서 살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 제한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말이다. 주변 존재와 환경에 의존하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제한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주변의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생존하는 존재이기에, 이런 관계성들이 어떠한가에 따라 인간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런 관계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한계성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맞추어 낮추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이다. 만물 안에서, 인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관계성을 형성하면서 신뢰의 관계를 이루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단순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성에만 국한하여 이해함으로 영적인 삶을 우리의 영의 관계성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안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알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이요, 기독교윤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 2. 그리스도인 삶의 실존적인 관계: 삼중적 관계성

결론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본성이 선하거나 백지가 아니라 악하다는 사실과, 내주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의와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과, 육체적인 존재이기에 제한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주변 존재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 삶의 본질임을 인식해야한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실존적인 존재인 하나님, 인간, 그리고 다른 피조물인 자연과의 관계성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런 관계는 개인에 따라 한쪽에 편중 또는 치중되어 살고 있다. 온전하고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관계성들이 균형있게 동시에 추구되어지면서 사는 것이라 하겠다. 굳이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타락 이전의 에덴동산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며, 돕는 배필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에덴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삶이 바로 최초의 이상적인 인류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삼중적 관계성을 잘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간과의 관계성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이루고 있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성인 “삼중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곧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기독교 윤리는 바로 이런 이해 안에서 교회나 가정, 나아가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로 실천적인 삶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삼중적인 균형잡힌 관계성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상적인 윤리적 실천을 이루게 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삼중관계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나와 너의 만남을 실존하는 현실성(Reality)으로 인정한 마틴 부버는 참된 삶을 ‘만남’으로 규정하고 있다(Martin Buber, 1937: 34). 즉 만남에서 너가 영원한 너인 하나님이든지 타자인 사람이든지 그것이 사물이든지 이런 만남을 통해 자이는 형성되고

이것이 곧 진정한 현실이라는 이 사상은 기독교 윤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부버의 만남은 곧 대화와 공동체라는 개념을 중시하게 하였고, 이는 기독교 윤리와 교육 안에서 많은 이론적 발전을 이끌었다. 위 도식을 통한 삼중적 관계성을 표현한 것은 부버의 이론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킨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간접적인 관계, 즉 삼중 관계 안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이해되며, 더 나아가 교회의 거룩성은 드러난다.

### III. 삼중적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

그리스도인들의 삼중적인 만남은 결국 하나의 관계성을 이룬다는 말인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사물)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신뢰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데, 이는 단순히 인간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는 다른 존재들과도 동시에 관계성을 맺고 있음을 앞의 장에서 살펴보았다. 본 장은 이런 삼중관계를 먼저 신학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1.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은 크게 세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연합의 관계(Communion Relationship), 둘째 부자관계(Father-Son Relationship), 마지막으로 주종(Master-Servant Relationship)이다.

##### (1)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Communion relationship) (엡 1:10)

사람은 창조 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속성 또는 하나님과 닮은 그 어떤 모습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하나님

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말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언급이 크게 세가지로 정의되는데 이는 “스스로 계신자(출 3:14)”, “영(요 4:24)”, “사랑(요일 4:8)”이시라는 것이다. 이들 하나님의 속성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되도록 은혜로 주셨고,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로 인간은 창조되었고, 이 연합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바로 죄이며, 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단절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연합이 파괴되어진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연합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로 다시 단절된 연합을 회복시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다시 통일(연합)되게 하셨다(엡 1:10). 이 속량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양자의 영인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내주하시어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중생시킴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는 타락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상태로 본래 인간의 본성을 회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인간 안에 직접 내주하심으로 피조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의 자격이 상승된 상태를 의미한 것이라 하겠다. 즉 창조 시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외부의 하나님과 교제의 연합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녀로 거듭나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나님과 같은 지위로의 격상의 연합의 상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사랑의 연합에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연합의 상태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롬 8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연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내적교통을 이루며 사는 존재인 것이다.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예배는 바로 이런 내적교통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에밀 브루너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조직신학적으로 “신앙”으로 이해하고 “신앙의 행위”가 뒤따른다고 보고 있다(Emil Brunner, 1962: 148).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존적인 연합 보다는 행위적으로 참여하는 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실제적 인도하심을 강조하기 보다는 윤리적 실천적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칼빈은 그의 신학의 전반에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존 칼빈, 2009: 139-223). 관계적 연합이든 실존적인 연합이든 이 둘은 분명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2) 부자관계(Father-Son Relationship)

성경의 창세기는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은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신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요1:12). 이는 창조시의 인간의 상태보다 타락 후 구원에 이른 인간의 상태가 훨씬 더 높게 묘사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격상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하나님의 목적이 처음부터 창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임을 이미 창세전에 구원의 경륜 안에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말이다. 구원은 곧 창조보다 훨씬 높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란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성경은 지적한다(갈 4:7; 약 2:5).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통치되어지고 완전히 구현되는 곳이다. 이곳을 우리는 천국이라 부른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과 영원히 머무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들을 완전히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사후에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간이 사는 이 땅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빌 2:12).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영의 소욕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며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드

러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인 것이다. 거룩과 경건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요 특권인 것이다(존 칼빈, 2009: 252-261).

### (3) 주종관계(Master-Servant Relationship)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 된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이나 군사 또는 도구로서 묘사되기도 한다(딤후 1:1; 뱀전 2:16; 딤후 2:3-4).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이지만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Mission)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동시에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입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 또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자녀로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object)이 되기도 하지만, 제자로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체(subject)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Lord)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스승(Master)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처럼 죽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이 곧 주종의 관계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이 땅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열둘을 택하여 불러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셨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당신의 사명을 계승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각각의 주어진 환경과 특성에 따라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모인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으로 비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기관으로 여기고 있다. 주의 사명을 행하는 기관인 몸 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그 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곧 의무요 책임이다. 물론 이 사명은 넓은 의미로서 증인되는 것이리라(행 1:8).

요약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영적인 교통의 관계로, 자녀된 권세를 가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관계로, 그리고 사명을 받은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관계로 드러나고 있다.

## 2.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서 상호의존적 관계(Mutual Interdependent Relationship), 동역자로서의 관계(Co-worker Relationship), 도덕적 관계(Moral Relationship)가 있다.

### (1) 상호의존적 관계(Mutual Interdependent Relationship)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어 함께 있게 하셨다. 즉 육체로 지음받은 인간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창조되었지만 불완전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신 것이다. 인간은 홀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게 창조되었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이 서로 연합하여 돕는 배필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 안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사랑의 관계를 허락한 것이다. 연약한 육체적인 부분까지 서로 보완하며 한 몸을 이루며 살도록 하는 한 것이 바로 가정이다.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면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하나가 됨을 의미한 것이라 하겠다. 혼자로서는 불완전하지만 가정 안에서 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보완해주는 그래서 함께 사랑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과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명령 받은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 서로 하나가 된 관계를 말한 것이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형제요 자매로서 넓은 의미로서의 가족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넓은 의미로서의 가족공동체인 것이다. 영적

으로 정신적으로 서로 연합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어져가는 곳이 교회인 것이다. 사회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없지만 정신적 문화적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보다는 좀 더 협소적인 상호의존 관계인 것이다. 즉 가정이야 말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온전히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포괄적인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곳이라 하겠다.

## (2) 동역자로서의 관계(Coworker Relationship)

성경은 그리스도인 각자를 표현할 때 몸을 비유로 각기 다양한 지체로 말하고 있다 (엡 4:16). 우리는 각기 서로 다른 지체로서 각기 다양할 수 밖에 없고, 서로 다른 사명과 달란트를 가진 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명과 달란트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지체들로서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하고 있음을 동시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비록 서로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서로 다르게 주어진 기능으로 순종하는 동역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비록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자는 의미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다 구체적으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수 만큼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지체, 서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한 몸이라 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동일하게 부여받고 그 분으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을 또한 공급받고 있음을 의미한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사명으로 함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동역자의 관계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과의 동역의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 단순히 내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직분과 사명은 거룩하고 의로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다른 각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서로 동역자된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불완전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로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는 즉 양육되어져 가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칼빈은 교회의 이런 사명에 대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여 그 안에서 날마다 양육되어 성장하는 지체임을 역설하고 있다 (존 칼빈, 1986: 54).

### (3) 도덕적 관계(Moral Relationship)

사람과 사람의 마지막 관계로 도덕적 관계를 들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먼저 하나님의 산이라 할 수 있는 시내산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여 주신다. 십계명 중에 첫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제시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사람과 사람은 도덕적으로, 다른 말로하면 인격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사람이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적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성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성에서 미움을 포함하여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남녀의 관계성에서 마음으로나 육체로나 간음하지 말아야 하며, 물질과의 관계성에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고, 말과 마음의 관계성에서 거짓증거나 탐욕을 갖지 말아야 하는, 즉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즉 자기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을 깨뜨릴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런 행위를 금하는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을 명령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밝히고 있다. 규범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최초로 인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거나 또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윤리적인 잣대로 아무렇게나 적용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따라 도덕적 명령

에 따라 사는 것이 요구된다.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윤리적 명령으로 실천되는 것이며, 사람과 사람은 이런 도덕적 관계 안에서 만이 올바른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도덕적인 적용을 배제하고, 남녀노소, 인종, 문화, 종교, 빈부, 학력 등으로 차별하거나 소외한다면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런 도덕적 관계 안에서 만이 삶의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 3. 사람과 자연의 관계성

사람과 자연의 관계성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쟁을 중심으로 세 가지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로서 동료관계(Companionship), 창조 시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 피조세계를 관리하라는 청지기관계(Stewardship),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친족관계(Kinship) 이 세 가지로 정의된다.

#### (1) 동료관계(Companionship)

동료 곧 친구관계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사람과 자연은 하나님의 같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존재라는 점이다(롬 1:20).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존재이지만, 다른 만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동료관계라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더 많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피조물을 위에서 지배하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하관계, 즉 수직적 구조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오히려 만물을 살펴보면 거미줄처럼 상호 연관되어 의존하고 있는 동료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질서 안에 있

으며, 이것은 곧 형태와 물질로 구성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곧 eco-system이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먹이사슬에서 가장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생화학적 순환의 한분에 해당 된다. 인간은 이 생태의 질서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그 안에서 영향 받고 지배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은 결코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자연에서 온 것이다. 자연의 도움이 없이는 육체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연 속에 있고, 자연과의 동료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자연의 물리적 세계에 한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태질서를 파괴하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월등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도덕적인 삶이 가능하며, 이성적 사고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인간의 가공할 만한 능력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많은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해되어야 하지, 만물 위에서 만물을 인간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동료관계이다(Ruth Page, 1996: 57-60) 생태파괴로 인한 생태위기는 바로 이런 무분별한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즉 수직적 구조에 의한 왕적통치(Kingship)에 기반한 신학적 사고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하지만 수평적구조인 동료의식(Companionship)은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한다. 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은 같은 동료로서 인간은 주어진 능력만큼 더 많은 윤리적 책임을 갖는 것이지, 결코 만물보다 우위에 서서 만물을 다스리는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

## (2) 청지기적 관계(Stewardship)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성에 청지기관계는 인간의 위치를 좀 더 동료관계보다는 우위에서 보는 관점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모든 만물보다는 더 나은 존재로 만물을 인간의 발아래 꿇게 하셨다는 이해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며 경각하며 가꾸는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물론 청지기 의식은 만물에 대한 소유권적인 면에서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의 윤리적 책임성의 과중함에 두면서, 인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적 위임을 받은 신분으로 자연을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두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만물을 통치하는 책임을 위임받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그리스도 통치의 방식을 희생과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대리적 위임을 통한 통치도 동일하게 희생과 섬김을 통한 방식(Lordship)임을 강조한다. 현재와 같은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소유를 통한 자연의 착취와 사용만을 강조하는 논리를 반대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합당한 사용을 강조한다. 청지기 관계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자연의 창조질서를 유지 보존하는데 관심을 두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한 개발과 인간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창조질서의 유지보존의 입장에서 만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호남신학대학교, 1999). 청지기적 관계성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최소한의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동료의식은 이런 부분이 허용되고 있지 않음이 그 차이라 할 수 있다.

### (3) 친족관계(Kinship)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에서 친족관계는 동료관계나 청지기관계보다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 하겠다. 동료관계는 자연만물을 피조세계에서 육체적 동질감과 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친족관계는 단순히 물질적 동료관계 이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동료관계는 인간이 만물로 낮아졌다면 친족관계는 만물이 인간처럼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 친족의 관계성이 널리 알려진 것은 성자 프란체스코에 의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프란체스코, 2010). 그는 해와 달과 별을 향해 나의 친애한 형제요 자매로 칭하면서 대화하였고, 심지어 늑대라도 대화한 신비한 형태의 체험들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간과 함께 얼마든지 교제가 가능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참여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을 공유한 가족관계라는 말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인간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함께 참여하고 공유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만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인 만물과도 얼마든지 교통(Communication)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친족관계에 대한 이해는 다른 두 개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보다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안에서 무궁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교통하며 존재하시고,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은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기도 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표지를 담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으로 서로 보편적인 형제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친족관계는 매우 타당한 이해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생태위기에서 매우 중요한 윤리적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은 수직적인 상하관계(hierarchical relationship)로 인식하는 신학적 구도에서 자연은 인간의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존재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Lyne White, 1973: 266-274). 하지만 인간과 다른 피조물사이의 본질적이고 윤리적인 정도의 차이를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sup>2)</sup>

위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에 대해 세가지 주장을 살펴보면 어느 한 가지만을 올바르게 말할 수 있지 않다. 왜냐하면 동료관계는 물질세계에서 인간과 자연의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고, 청지기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부여한 대리적 통치에 대한 책임성을 잘 대변하고 있으며, 친족관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서 신비롭게 역사하사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잘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윤리의 적용에서는 이 모든 면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보인다.

#### IV. 삼중적 관계성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방안

앞장에서 삼중적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삼중적 관계성에 대한 기독교윤리의 실천방안을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2)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인간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으로 삶의 윤리적 차이를 두셨다(창 1:22; 28). 그리고 오직 인간에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본질적인 차이를 두셨다(창 1:27; 2:7).

한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예배로 사람과의 관계성은 희생과 봉사로, 자연과의 관계성은 살림으로 윤리적 실천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윤리적 실천: 예배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성은 무엇보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율법의 순종의 의를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 언제 어디서든지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성령님의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종 된 자임을 확신하게 되고, 자신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헌신하며 이 땅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이라 하겠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만 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장이다(James D. Smart, 1956: 119-122).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교리에서 나오고 이 올바른 교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위에서 만이 세워진다는 칼빈의 지적처럼, 예배를 통해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여기서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서의 공적예배만을 말한 것은 아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신이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전통은 훌륭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은 단지 물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영의 양식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주어진 다양한 현장에서 매일 한번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으로 거룩함을 덧입어야 한다. 예배는 윤리적 실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신자는 ‘거룩성(holiness)’을 입는다. 왜냐하면 이 거룩성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만이 나옴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없이는 신자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다(벧전 1:16). 거룩성이란 이 세상의 조류와는 다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별성(distinction)’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예식으로서의 구별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를

삶은 윤리적 삶의 모습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윤리적 실천은 예배를 통한 거룩성으로부터 출발하며, 예배를 통한 거룩성은 반드시 불가분리적으로 삶의 윤리적 실천의 형태로 실현된다. 윤리가 없음은 곧 거룩한 예배가 없다는 말이며, 거룩한 예배가 있는데 윤리가 없다는 말은 거짓이요 종교적 가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삶이 예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Aiden Wilson Tozer, 2006: 22-46).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적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에서 출발해야 한다. 거룩한 예배를 위한 요소와 방안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신학적 토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기독교 윤리적 삶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예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겠다. 결과적으로 예배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제공하고, 예배의 참여자는 창조주요 구원주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인격적 만남이 구현된다는 곳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윤리적 실천은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현된다 하겠다.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실체는 곧 ‘사랑’이다. 이 사랑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희생과 봉사’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과의 관계에서 ‘살림’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하겠다.

## 2.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윤리적 실천: 희생과 봉사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의 관계성으로 표현하고 있다(요일 4:7-8). 즉 하나님은 단지 존재로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관계로 실재하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기에 우리 인간은 사랑 안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랑은 필연적이며, 사랑이 없는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의 요한복음 3:16 절에서 그 의미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

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희생(sacrifice)으로 수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사랑의 의미라는 말이다. 곧 사랑은 희생을 말하며, 이 희생은 자신이 죽어 남을 살리는 일을 말한다. 즉 희생은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요 나는 들리며, 다른 사람이 중심이요 나는 변두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C. S. Lewis, 2001).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희생을 통해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 이 땅에서 희생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앉은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사랑의 의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성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이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구체화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는 곧 희생과 봉사로 다른 이를 돌보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런 희생과 봉사로 사랑의 관계성을 이어갈 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전파되는 은혜의 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눅 4:18). 당시에 가장 낮은 자인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한 것이 육신으로 온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윤리적 실천이었으며, 이는 곧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삶의 실천의 요소로서 보여준 표지이기도 하다. 즉 가난과 소외로 고통 받는 자가 희생과 봉사의 대상이라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은 사랑의 윤리적 실천으로 돌아보아야 할 구체적 대상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으로서 희생과 봉사로 실천해야 할 소외자의 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말하고 싶다.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어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계층으로서 노숙자와 탈북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이다. 노숙인은 2011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1만 8천여명으로 예상된다.<sup>3)</sup>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2011년 9월 현재 1,418,149명으로 집계되어 있다.<sup>4)</sup> 이 중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55만 명이고, 불법 체류 노동자가 17만 명 정도인데, 이 둘을 합한 72만 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주 노동자’이다. 탈북자도 매년 약 3000여명이

3) 이 통계는 2011년 1월 27일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이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전국 홈리스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전국적으로 17,815명[인구 1만 명당 3.5명]에 이르며, 평균 연령은 47.4세이고, 20~50대 노숙인이 1만4726명으로 87%를 차지하며, 성별은 남성이 95.6% 여성이 4.4%이고, 노숙기간은 평균 1.91년으로 알려져 있다.

4) 국가통계포털 사이트를 참조. [http://kosis.kr/learning/learning\\_002007.jsp](http://kosis.kr/learning/learning_002007.jsp).

입국하고 있으며, 2010년에 2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sup>5)</sup> 특히 노숙자, 탈북자, 불법 외국인 체류자인 약 21만명 넘는 이 세 부류는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와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인권, 그리고 의료와 교육, 복지의 혜택 등이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자로 여겨진다. 2005년 통계로 개신교 인구는 861만명이며 전국교회의 수는 약 6만 여개이다. 단순한 통계로 신자 40명당 1명, 한 교회당 3-4명을 돕는다면 이 소외계층은 한국 땅에서 사라질 수 있다. 모든 신자와 교회가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별로 교파를 초월한 교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 소외계층을 돕는다면 엄청난 사회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희생(Sacrifice)과 봉사(Diakonia)는 교회와 가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 즉 종교와 피부색,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이다.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한다. 단지 현 세대만을 위하여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위적인 낙태나 산아제한 등을 반대해야 하고,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식량과 자원의 문제도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 세대만을 위한 무제한적 자원의 사용을 억제하고, 현 시대의 편리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산과 강과 바다를 마구 훼손하고 파괴해서는 안된다. 이는 우리의 다음세대도 사용하는 공동의 재산들이기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봉사가 없게 된다면 이들의 거룩성은 종교적인 형태에만 머무르는 형식과 외식으로 드러나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 반드시 그가 부르신 자들의 거룩성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한 자에게 희생과 봉사로 드러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희생과 섬김의 대상도 단지 교회내의 제한된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차고 넘쳐 사회로까지 흘러가는 것이 또한 속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윤리적 실천은 이웃

5) 통계청자료 참조.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94&bbs=INDEX\\_001&clas\\_div=C&rootKey=1.48.0](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94&bbs=INDEX_001&clas_div=C&rootKey=1.48.0)

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통한 사랑의 실천이 교회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회 밖의 사회적인 이슈들과 아픔들을 교회는 함께 공유해야 하며,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에서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 3. 사람과 자연에 관계성에 대한 윤리적 실천: 살림

사람과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가진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롬 1:20).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으로 만물을 왕으로서(Kingship)의 다스림이 아닌 주님(Lordship)의 다스림과 같은 사랑의 통치를 위임 받았다(김균진, 1991: 100-107). 즉 성경적인 우주관(세계관)은 kingship이 아닌 Lordship이라는 말이다(요 13:34; 15:12). 만물을 인간의 마음대로 소유하여 다스리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위임 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사명을 준 것이다. 인간이 청지기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살림’에 있다. 즉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주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살리듯이 또한 인간도 만물을 사랑으로 살리는 것이 만물에 대한 본질적인 사명이라 하겠다.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만물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부모와 주인으로서 섬기며, 만물은 지구라는 집 안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요 동료와 친지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함께 공존하며 살길을 찾는 것이 바른 윤리적 실천이며 살림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자연과의 관계성에서 윤리적 실천인 살림은 크게 세가지 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자원에 대한 최소한의 사용을 위하여 생활방식의 개선과 식량 위기에 대한 분배, 그리고 창조질서의 보존에 있다.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만큼 무한하지 않다. 인류 산업의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 에너지 자원은 현 매장량으로 약 50년 잠재적 매장량까지 합하여 약 100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현원복, 2004: 57). 고갈된 자원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인구는 불과 20억명이었다. 현재 인구는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70억이 넘는다. 무려 3배가 넘게 늘어난 인구폭발로 식량 및 자연자원은 엄청난 소비량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같은 개발

도상국가들은 앞 다투어 선진국이 되고자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2000년에 어떤 경제학자가 조사하기를 미국인 한사람의 평균 일년 소비량은 중국인은 200명이 인도인은 300명이 평균 일년 사용하는 소비량과 같음을 조사한 적이 있다. 중국이나 인도가 모두 선진국이 되어 미국인들과 같이 소비한다면 일년에 지구같은 혹성이 5개나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나 인도, 아프리카 모두가 그들이 추구한대로 선진국이 되어 잘 살게 된다면 우리 인류는 공멸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산업발전으로 선진국이 되어 잘 살게 되는 목표는 인류모두가 함께 공멸하자는 말과 같다는 말이다. 인류의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분명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다. 성정은 어디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고 명령한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므로 신자의 육체적 삶은 삶의 변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소에 있고, 물질적인 삶은 소유가 아닌 관리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발전, 진보, 문명이라는 명분하에 인간의 끝없는 편안함을 추구한 것이 자연파괴의 일차적 원인은 모두가 지적하고 있다(조용훈, 1997: 19-62).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에서 통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본주의적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배격하고, 서로 공존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상생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로 살림의 구체적 실현은 바로 밥상윤리이다. 현 지구상의 인구 중에 만성 영양 부족으로 인한 기아인구가 2010년 약 10억명으로 추산되고 있다(한겨레, 2010년 9월 15일). 하지만 이는 세계식량의 생산량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분배의 편중의 문제로 인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원인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밥상의 남은 음식이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는 이의 먹어야 할 식량일 수 있음을 기독교인들은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닌 인류 전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창조질서 보존에 대한 살림의 실천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특별히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동물로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유전자 조작의 대표적인 곡물인 콩과 옥수수는 병충해와 생산량을 늘리려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간의 면역체계를 위협하는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으로 인하여 아토피와 알러지 등이 현대를 사는 어린이들의 일

반적인 질병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생태계에서도 신종플루와 같은 변이적인 형태의 생물들로 인해 원래의 질서들이 파괴되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함께 인위적인 유전자 조작 생물들로 인하여 21세기는 더 이상 예측을 할 수 없는 생태계의 재난을 맞이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의 모습으로 유지 보존하는 것이 살림의 중요한 윤리적 실천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생명을 경시하는 자살, 낙태, 배아복제 등의 문제를 이 창조질서보존운동에 맞추어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치에 벗어난 동성애나 안락사 등도 함께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세계는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최초의 환경회의가 열리면서 환경운동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이 시작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한국은 인권까지도 포함한 생명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환경이나 생태라는 관점보다 더 깊이 근원적인 요소인 생명이라는 담론으로 생명회복운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생명회복운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살림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생명회복은 인간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포함하여 살리는 ‘살림’인 것이다.

## V. 결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인간과의 관계성,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성 안에서 영위되어질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는 연합, 자녀, 종이라는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기독교윤리의 실천의 방안으로 예배를 제시하였고, 인간과의 관계성에서는 상호의존, 동역, 도덕이라는 관계성을 형성하는데 이를 위한 기독교윤리의 실천 방안은 희생과 봉사로 제안하였고, 자연과의 관계성은 동료, 청지기, 친족이라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위한 기독교윤리의 실천방안으로 살림을 언급하였다. 예배와 봉사와 살림의 기독교윤리의 실천 방안들은 또한 따로 서로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보다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예배와 봉사와 살림이 동시에 함께 실천하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삼중적 관계성은 그 전체가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이며, 각 삼중적 관계성을 통



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삼중적 관계성에 따른 기독교 윤리적 실천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한 예배를, 가정에서 인간의 관계성을 위한 봉사를, 자연에서 자연과의 관계성을 위한 살림을 교육하는 것이 좀 더 쉬울 수 있지만, 갈수록 시간적 여유가 자유롭지 못하는 현대의 삶에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런 통합적 실천의 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인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믿음 또는 영성, 그리고 윤리적 실천을 그리스도인들이 정의할 때, 이 삼중적 관계성은 항상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기독교인들은 이 삼중적 관계성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하는 사람들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고용수 (1994). 『만남의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장신대출판부.
- 김경재 (1997). 『생명신학과 윤리』. 서울: 열린문화.
- 김근진 (1991).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서철원 (2003). 『교리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 조성국 (1998). 『기독교 인간학: 하나님의 형상인 전인적 인간학』. 부산: 고신대학교부설 기독교교육 연구소.
- 조용훈 (1997). 『기독교 환경윤리의 실천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_\_\_\_\_ (2002). 『동서양의 자연관과 기독교 환경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존 칼빈 (2009). 문병호 역. 『기독교강요 초판』. 서울: 생명의 말씀사.
- \_\_\_\_\_ (1986). 김종훈 외 공역. 『기독교강요 하』. 서울: 생명의 말씀사.
- 프란체스코 (2010). 김기석 역. 『가난한 마음과 결혼한 성자(아씨시의 프란체스코)』. 서울: 포이에마.
- 현원복 (2004). “세계 석유매장량 수명 100년.” 한국과총 편. 『과학과 기술』. 2004년 11월호.
- 호남신학대학교 편 (1999). 『생태학과 기독교신학의 미래』. 서울: 한들출판사.
- Buber, Martin. (1937). trans. by R. G. Smith. 『I and Thou』. Edinburgh: T&T. Clark.
- Brunner, Emil. (1962). trans. David Cairns in collaboration with T. H. L Parker. 『The Christian Doctrine of the Church. Faith and Consummation: Dogmatics: Volume II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Lewis, C. S. (2001). 장경철 외 역. 『순전한 기독교』. 서울: 홍성사
- Page, Ruth (1996). 『God and the Web of Creation』. London: SCM Press Ltd.
- Smart, James D. (1956).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Tozer, Aiden Wilson. (2006). 이용복 역. 『이것이 예배다』. 서울: 규장.
- White, Lyne. (1973). “The Historical Roots of Ecological Crisis.” ed. by Miguel A. Santos. 『Readings in Biology and Man』. New York: MSS Information Corporation.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440011.html](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440011.html). 한겨레 신문. 9월 10일.
- [http://kosis.kr/learning/learning\\_002007.jsp](http://kosis.kr/learning/learning_002007.jsp).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94&bbs=INDEX\\_001&clas\\_div=C&rootKey=1.48.0](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94&bbs=INDEX_001&clas_div=C&rootKey=1.48.0). 통계청자료.

## ABSTRACT

### Christian Ethical Practices in the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riune Relationships between God, Human being and Nature

Suk Ho Kim (Dae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rticulate some alternative suggestions of Christian Ethics in the understandings of triune relationships between God, human being, and nature. All Christians have the fundamental and unavoidable relationships between God, human being, and nature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creation. Therefore, christian faith means to involve this triune relationship, christian ethics should be defined in the understanding of this triune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 being is suggested as such communion relationship, father-son relationship, and master-servant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 and human being is interdependent relationship, co-worker relationship, and moral relationship, and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 and nature is companionship, stewardship, and kinship. In these relationships, all christians live and maintain their faith in church and society. Therefore, Christian ethics should consider all these relationships, and be practised by these ways. The ethical practi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 being is accomplished in ‘worship’ which is mystical communion between God and his childre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 and human being is practised in ‘sacrifice and serve’ which is lov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 and nature is actualized in ‘maintaining lives’ which is coexisting. In this understanding, Christian ethics conclusively should be practised in worship, sacrifice, and maintaining lives and these three categories should be characterized in more details.

**Key Words:** Christian Ethics, Triune Relationship, Communion Relationship, Father-Son Relationship, and Master-Servant Relationship, Interdependent Relationship, Co-Worker Relationship, and Moral Relationship, Companionship, Stewardship, and Kinship, Worship, Sacrifice, Maintaining Live